

법 어

오늘 우리는 불자 국회의원의 모임인 정각회라는 이름으로 불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참으로 소중한 인연을 맺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감사하는 수확의 계절답게 마음의 풍성함으로 만나는 오늘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겠다는 너무도 지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일종의 보살행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행을 실천하는 당사자가 헌신과 공경의 대상으로 국민을 인식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헌신과 봉사를 행하는 마음은 늘 평안하고 유연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잘 하려고 하면 오히려 경직되어 따르는 대중조차 긴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과 몸이 여유로워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잡이 소’는 이러한 여유로움과 깊이 연관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과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여러분은 바로 ‘길잡이 소’와 같으며, 길잡이 소가 쫓기듯 바르게 가지 않으면 뒤를 따르는 모든 이는 괴로움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초가 자신을 태워 밝히듯이 오늘 헌축을 하는 의원님들의 발원은, 자신을 희생하여 국민과 나라의 행복을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희생은 곧 광명이고 햇살입니다. 수없이 많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하소연에 한 줄기 따뜻한 햇살처럼 다가서야 할 이름이 바로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씨앗을 심으면 나의 결실을 이루겠지만, 남의 마음에 씨앗을 심으면 그 사람의 결실은 물론 내 마음에까지 향기로운 꽃을 이루게 합니다. 이러한 상생의 원력으로 가까이는 의원끼리 멀리는 수많은 민초들까지 진정한 자비심으로 껴안을 때 금풍은 온 나라를 가득 메울 것입니다.

불자는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떠나, 성별을 떠나, 빈부를 떠나 모든 이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국정에 임하시길 간절히 발원하겠습니다.

추수와 같이 국민의 행복과 마음의 풍성을 이루는 여러분의 진력에 늘 감사하며, 오늘 원력의 불을 밝혀 헌축을 하신 정각회 의원님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